

4·11 총선 표밭은 지금

■ 전남 목포

박지원 독주구도 속 대항마 나올까 관심

정당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이름	박지원	배종호
나이	69	50
역할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전 KBS뉴욕특파원 ·현 혁신과 통합 전남 상임대표 ·현 목포교육연대 공동 대표
※ 후보는 기니다 순		

전남의 정치 1번지는 목포다.

하지만 선거 열기와 긴장감은 그리 높지 않다.

우선 총선 구도는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의원과 배종호 예비후보, 통합진보당의 윤소하 예비 후보 등 3자 구도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단출하다.

이런 상황에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박지원 의원의 독주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좀처럼 총선 열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설 직전 실시된 광주일보-KBC 여

특히,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내에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과 김대중 전 대통령(DJ) 정신을 이어 나가는 한편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지속하게 바닥을 다지는 것으로 정평이 난 박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도 목포의 구석구석을 들여 시민과의 소통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진 배종호 예비

후보도 젊은 열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비전을

내세우며 목포 민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

다. 혁신과 통합 전남 상임대표를 맡은 바 있는 배 후보는 무안 반도 통합 등을 토대로 전남 서남권의 인구 100만 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포의 꿈'을 내세우고 있다.

목포를 국제도시로 도약시키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배 후보 측에서는 젊어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젊고 새로운 목포를 원하는 민심이 꿈틀대고 있다

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총선 주자로 확정된 윤소하 후보는 목포의 '낡은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역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쳤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 후보 측에서는 목포 민심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나가겠다는 각오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독주 구도가 상당히 강고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공심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선거구도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

표를 지내며 정국을 주도한 것은 물론 각종 청문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파원 출신 민주통합 배종호 선전 기대

통합진보당 윤소하 낡은정치 타파 주장

본조사 결과, 박지원 의원은 민주통합당 예비 합동으로 70.9%, 총선 후보 지지도에서 66.6%의 지지율을 기록, 광주·전남지역 총선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KBS 뉴욕특파원 출신의 배종호 예비 후보는 민주통합당 후보 합동에서 17%, 총선 후보 지지도에서 11.1%에 그쳐, 반전의 계기가 절실히 평가다.

윤소하 통합진보당 예비 후보는 총선 후보 지지율에서 9.2%를 기록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지난 2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침에 따라 목포의 선거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전남 정치 1번지인 '목포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큰 인물, 큰 정치'를 강조, 목포 민심을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정국을 주도한 것은 물론 각종 청문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재균 "전직대통령 예우법률 개정"

민주통합당 김재균(광주 북구 을) 의원은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밟아허겁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영택,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민주통합당 조영택(서구 갑) 의원은 지난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치고 '재선' 도전에 본격 나섰다.

조 후보는 지난 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운천지수지 맞은편 신환빌딩 2층에서 당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의 경륜과 18대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올 연말 대선에서 민주정부 수립에 기수가 되겠다"며 "또한, 광주를 자동차의 메카로 만들고, 공항 및 소각장 문제를 마무리 짓고, 광천동과 양동 등 체계개발지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선거사무소 개소 본격 행보

민주통합당 강기정(북구 갑)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두암2동 동광주빌딩 5층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3 선 도전'에 본격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차지단체장, 지역 내 노인단체 및 경로당 회장단 등 지자체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개소식에서 "총선 압승과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 골목상권을 살려내 서민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정책 릴레이 간담회 시작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인 이용섭(광산 을) 의원은 지난 4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교조 광주지부 집행부와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2010년 총선·대선 교육 공약 주요 요구안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또 차지단체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의 법제화도 의견도 주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4·11 총선·보선 현장

이윤석, 총선 예비후보 등록

민주통합당 이윤석 국회의원이 19대 총선 무안·신안 출마를 위해 3일 무안군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등록에 앞서 "무안·신안의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조선보다는 재선 의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신안 도서 지역 연륙·연도교 사업, 무안 해변도로 둘레길 조성 등 현안 사업을 지속적이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어린이 힐링센터 조성"

이병훈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아시아 문화전당의 어린이 교육원과 직접 연계된 '어린이 힐링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예술과 놀이를 통해 자폐아 등 몸과 마음이 불편한 어린이들을 치유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린이 힐링센터는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해 거리적으로 가까운 전남대병원에 조성하고, 이곳에는 치유시설과 체험시설, 다양한 놀이시설이 함께 들어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린이 힐링센터가 조성되면 연간 50만 명 이상이 동구를 찾아오고, 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며 "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블 끼친 동구를 다시 되살리는 노동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현모 "상품거래소 북구 유치를"

임현모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5일 "동북아 상품거래소가 지역 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구 갑 지역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최근 강원태 광주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동북아상품거래소' 광주설립을 건의한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광주 북구 갑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시설이 낙후되고, 대형 기관도 없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동북아 상품거래소를 광주로 유치되어 반드시 북구 갑 지역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재, 선거사무소 개소

정영재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가 지난 3일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전일빌딩 6층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개소식 축하 메시지 소개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회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정 후보를 응원했다. 정 후보는 "새로운 변화와 창조적 도약이 절실히 필요한 동구의 현실을 살기 좋은 도시, 다시 돌아오는 동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갑석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을"

송갑석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체육수요를 감안해 서구에 생활체육전용 다목적 실내 체육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서구에 있는 체육시설이 대부분 광주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선수훈련을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사용하려면 선수들의 일정을 피해야 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채원, 선거사무실 개소식 성황

서채원 민주통합당 강진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강진읍 남성리 터미널 인근에 선거 사무실에서 7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하도 활용은 풍랑 구역의 정비시기에 맞춰 통로·출입구 등을 개선해 부채널 밭과 문화·공공시설, 창업인큐베이터, 지하상가 주민에게 세 가지 대안을 갖고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가은 부동산

대인동삼일부동산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나공사광주전남지사점 유지빌딩 501

오피스텔 상가

●시청앞 오피스텔상가(1층) 분양가 이하 금액 1,174㎡.

매매가 상담후 결정. 분할매각 가능 합니다.

투자 및 사업용 토지.

●광신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 4,260㎡, 제2종일반주거역, 35m 계획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10만원.

●광신구 송정동 송정역 앞 1,117㎡, 제2종일반주거역, 매매가 3,3㎡당 300만원.

●광신구 송정동 송정역 뒤 628㎡, 제1종일반주거역, 매매가 3,3㎡당 105만.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빼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을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p